

기지가 켜는 잠룡들 '대권 변주곡' 예측 불허

■ 2012년 대선 시나리오 어떻게 돼 가나

여권 박근혜 대항마 친이계 누구?

◇지지를=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오 특임장관, 민주당에선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전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정책연구원장,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무소속의 김두관 경남지사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다.

아직 일부 후보군을 제외하곤 대선주자로서 검증받지 못한 전이어서 현재 지지율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강 6중, 이하 약체로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선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오르내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정권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디어법 처리, 세종시 논란, 4대강 사업 논란 등 전 사회를 들끓게 한 쟁점이 정치권을 휩쓰는 과정에서 신비주의 전략으로 변함없는 1위를 지키고 있다.

다음으로는 7~9%대에서 10%대 초반 사이에 걸쳐있는 중위권 그룹이 있다.

이 그룹엔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지를 2위 다투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야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엔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지를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나머지 후보들은 매 순간 순위가 바뀌며 주요 쟁점에 따라 지지를 변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 즐비한 쟁점과 변수 속에 후보들의 지지는 요동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미래의 희망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가 향후 지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 영향력·야권 단일화 초미 관심

◇변수와 전략=향후 2년 동안 대선 과정은 긴장과 위기, 변화와 반전 등이 어우러진 드라마들이 현실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권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변수다. 친이계가 뿔뿔 뿔쳐 한 후보를 만들고 여기에 힘을 집중한다면 박근혜 전 대표와 해빙 만한 계임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뚜렷한 친이계 후보가 없다는 점.

김문수 지사와 오세훈 시장, 정몽준 전 대표가 거론되지만 친이 직계로 보기 힘들다는 것일 일반적 평가다. 이재오 장관이 이 대통령 최측근이긴 하지만 아직 미미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친이계에선 차선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 이마저 힘들다면 김 지사와 오 시장, 정 전 대표 등 중에서 박 전 대표의 대항마를 고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권에선 자유선진당과 후보 단일화 노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자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아오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여권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레일덕이 가속화하면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예비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대선고지를 바라보는 예비후보들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에는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가 화두가 되면서 야권 대선 단일후보를 향한 후보 간 협조와 경쟁이 각종 대선 시나리오와 함께 서서히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유시민 국참당 연구원장

유선진당이 지금까지 각종 현안에서 여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기본적인 철학 스펙트럼이 겹친다는 측면에서 야당보다는 여당과의 후보 연대에 더욱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야권의 대권 구도는 더욱 복잡하다.

지지를 20% 이상이 나오는 월등한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승리를 경험한 야당이 때문에 대선 승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야권의 분위기다. 물론 여기에는 야권 연대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야권의 대선 후보 결정은 두세 번의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의 후보 결정이 선행되고 이후 국민참여당 및 야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전 대표 등이 이른바 '빅3', 나아가 천정배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 등이 경쟁을 펼쳐 민주당 후보를 뽑고 이후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과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존 후보들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영남 후보론이 확산할 경우 김두관 경남지사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른바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에 뛰어 들 가능성도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도 이 같은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대북정책과 복지·노동정책 등에 있어 이견이 커서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현재 정치권 분위기다.

이 같은 대선 시나리오는 여야 각 정파들이 내세우는 후보들의 지지를 추이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여야 모두에게 제시되는 대안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드다. 여권의 경우 친이계가 확실한 후보를 만들지 못할 경우 반기문 총장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야권도 기존에 거론되는 후보들이 여권 후보에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반 총장 카드를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 총장은 대선 참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후 대선 구도를 뒤흔들 핵폭탄급 변수는 개헌이다.

친이계의 경우 이 개헌 논의를 통해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박 전 대표와 경쟁을 펼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입장 차이가 따라 여야를 넘어서서 정치권 구도가 재편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야권뿐 아니라 친박계가 개헌 논의에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개헌·복지·안보 등 주요 쟁점될 듯

◇대선 좌우할 쟁점들=2012년 대선을 2년여 앞두고도 주요 쟁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복지, 남북관계, 일자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성장을 모토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때문에 여야를 넘어 각 대선후보들이 복지 철학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또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걷고 전쟁의 위협까지 나타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후보 간 입장차가 확인해 향후 대선정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통한 실업률 개선이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는 실업대책도 대형 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현실감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선후보들은 경쟁 대열에서 밀리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예상 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생활금융
에버리치가 함께 합니다



EVER RICH 우체국에금보험

